
OECD "통계, 지식 및 정책"에 관한 단기연수 참가결과보고

2008. 10.



10년을 설계, 100년을 선도하는

통 계 청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일정	3
III. 주요 연수내용	5
1. 사회발전에 대한 측정이 왜 중요한가?	5
2. 어떻게 사회발전을 측정할 것인가?	2
3. 호주사례연구	14
IV. 출장성과 활용방안	17
< 붙임 > 연수자료 목록	12

□ 출장 개요

- 과정명 :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로서의 ‘통계, 지식 그리고 정책’
(Training Course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Understanding Societal Change)
- 기간/장소 : '08.9.16(화)~19(금), 이태리 시에나(Siena) 대학교
- 참가자 : 24명 (각 국 통계청·부처 담당자, 시민단체, 연구원 등)
 - 한국 : 김광섭(통계청 통계정책과장), 박진욱(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
- ※ 강사진 (교육주관, OECD, 룩셈부르크 통계청)
 - Daniel Byk (룩셈부르크 통계청, 전 Eurostat 국장)
 - Jim Ridgeway(영국 Durham 대학교)
 - Achille Lemmi and Stefano Bartolini (시에나대학교)
 - Filomena Maggino (국제 삶의 질 연구소, Internatioanl Socociety of Quality of Life Study)
 - Enrico Giovannini (OECD통계국장)
 - Jon Hall and Barbara Iasiello (OECD 글로벌프로젝트 팀)

□ 출장 목적

- 통계, 지식 및 정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한 동향 파악
- 호주, 캐나다 등 외국의 Best Practice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 세계포럼 의제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전문가 교류

- ‘증거(evidence) 기반 정책입안’ 등 세계포럼 관련 의제 논의

- ◇ OECD글로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국 정책 전문가들에게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과 이를 통한 사회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술적 지원 (technical assistance)을 하기 위함

- ◇ 통계 전문가에게는 통계 수집 및 배포에 있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 분석가에게는 보다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 변화의 이해 폭을 넓히고, 또한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 연수내용

- 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의 중요성

- 많은 국가들에 있어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수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집단(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들의 상호 합의를 통해 도출된 통계는 민주주의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

- GDP를 뛰어 넘은 발전의 측정

- “40년전에 로버트 케네디가 했던 말처럼 GDP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 단,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외하고서 말이다.”

- 통계를 지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환 툴(tool)

- Smart_center(영국, Durham Univ.), Gap_minder(OECD)

- 증거기반의 정책 입안 및 시민 참여

II

일정

날짜	시간	프로그램 내용
9/16(화)	15:00~15:15	인사말 (Angelo Riccaboni, 시에나 대학 학장)
	15:15~16:30	<p>개회 세션 : 사회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증거 (What evidence do we need to understand social change?)</p> <p>발표자 : Daniel Byk(STATEC), Enrico Giovannini, Jon Hall and Barbara Iasiello(OECD)</p>
	17:00~19:00	<p>그룹별 토론</p> <p>제1그룹: 증거의 신빙성(Credibility of Evidence) 제2그룹: 정책입안을 위해 필요한 증거 제3그룹: 국가통계기관의 역할</p>
9/17(수)	09:00~10:30	<p>통계의 지식으로의 전환: 새로운 ICT 툴 (Turning Statistics into Knowledge: New ICT Tools)</p> <p>발표자 : Jim Ridgway(영국 Durham대학교)</p>
	11:00~13:00	그룹별 실습 :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활용
	14:30~15:30	<p>통계 커뮤니케이션 - 대상과 방법 (Communicating Statistics - With Whom and How)</p> <p>발표자 : Daniel Byk(STATEC)</p>
	16:00~17:30 17:30~19:00	<p>그룹별 실습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p> <p>그룹별 토론</p>

9/18(목)	09:00~10:00	발전 및 웰빙 측정의 주요 접근법 (The main approaches in Measuring Progress and Measuring Well-being) 발표자 : Jon Hall(OECD)
	10:00~11:00	지표 연구 최신 동향 (The State of the Art in Indicator Research) 발표자 : Filomena Maggino(ISQOLS) - 지표 개발에 있어 방법론적 이슈 - 지표의 특성(지표 분류 등), 지표의 품질
	11:30~12:30	그룹별 토론 - 웰빙, 삶의 질, 발전 등의 개념에 대한 각 그룹별 개념 정리 및 실제 적용 등
	14:00~14:30	그룹별 토론 결과 프레젠테이션
	14:30~16:00	빈곤의 다차원 (The Dimensions of Deprivation) 발표자 : Achille Lemmi(시에나 대학 경제통계학과 교수), Vijay Verma(시에나 대학)
	16:30~17:30	‘이스털린의 역설’: 경제수준과 행복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Easterlin Paradox) 발표자 : Stefano Bartolini(시에나 대학)
	17:30~19:00	그룹별 사례 연구
9/19(금)	09:00~10:30	그룹별 토론 결과 보고
	10:30~11:00	발전 측정의 실례 : 호주 (Measuring Progress in Practice: the Australian experience) 발표자 : Jon Hall(OECD)
	11:30~12:30	향후 방향 논의 (How Will You Take this Forward When you Go Home?) 발표자 : Enrico Giovannini(OECD)
	12:30~13:00	폐회
	13:00~14:00	오찬 및 참가자 의견 교환

Ⅲ

주요 연수내용

1. 사회발전에 대한 측정이 왜 중요한가?

□ 개요

- 사회발전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의사 결정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국민들의 만족도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발견됨 → 기존 경제지표의 한계 노출, 삶에 대한 만족도 혹은 웰빙 측정을 위한 새로운 지표체계 필요
 - “새로운 지표체계를 만듦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부분을 더 발전시켜야할지 등에 대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David Walker, 미국)
- 여전히 아직도 “증거에 입각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 → “Evidence-Based Policy Making is not Myth, but Must”

□ 주요 내용

- 국가핵심지표체계(Key National Indicators)가 어떻게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줄 것인가? (David. Walker, 미국)
 -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많은 국가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많은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라는 것임

- 국가핵심지표체계는 국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줌
 - 정책결정자들은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 시간에 따른 또 타국가들과의 상대적인 발전의 측정이 가능
 - 미국 정부는 연간 3조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것이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이는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 없이 비행하는 것과 같은 얘기임
 -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핵심지표체계가 정부성과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수있는데 이는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표체계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파악이 보다 수월했기 때문임
 - 또한 국가핵심지표체계의 활용은 권력남용도 줄이는 역할을 함
 - .. “햇빛은 가장 강력한 살균제이다”, 통계지표는 광범위한 정부 정책의 수행에 햇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Louis Brandeis, 미국 대법원 판사)
 - 현재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등 개별국가와 EU,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경제, 환경,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국가핵심지표 체계개발을 완료하였음
 - 국가핵심지표체계의 활용은 공공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함. 국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서로 융합될수록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있을 것임
- ◇ "Tomorrow belongs to the people who prepare for it today"
(아프리카 속담)

○ 민주주의와 정보화시대 : 기회와 위기들

- 정보는 경제 및 정치의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증가된 정보량은 시장경제와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자체를 바꾸어 놓았음
- 또한 이와는 반대로 방대한 자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임. 주의를 기울여할 정보가 많다는 것으로 거꾸로 개별 정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Herbert Simon)
- 많은 사람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며, 글로벌 이슈의 복잡함에 대해 위협감을 느낌
 - 인터넷의 발달이 가지는 한계점도 있음, 예를 들면, 잘못된 정보의 유포, 광고를 통한 여론조작, 무엇이 정확한 정보이고 무엇이 잘못된 정보인가에 대한 판단의 혼란 등임. 정보를 모으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더우기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어려워졌음
- 고품질의 통계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공재,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로 인식되어 왔음. Geoff Mulgan(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의 자문관)은 “신뢰할만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아주 불가결한 요소이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반 시민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과연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 운이 좋은건지 아닌지, 혹은 정직한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길이 없다.”라고 언급
- 웰빙은 “well-informed”에 따라서 좌우되는데 잘못된 정보들은 급속히 퍼져나가기 마련이고 그러한 정보로 인해 사람들은 사실을 오해하게 되고 결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게 됨
- 동시에 사람들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GDP이외에 사회, 환경, 경제적 관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유권자가 정책결정자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한 신뢰를 가지면 가질수록 정책결정자가 더욱더 나은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임

○ 통계, 지식 그리고 정책간의 연결고리

- 매일 수백만명의 개인들과 집단은 통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함. 하지만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결정을 이끌어 낼 위험이 있음. 정책결정자들이나 기업경영자들이 활용하는 통계에 대해서는 고품질이 요구되는 반면,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통계에 대해서는 그 요구 수준이 훨씬 낮음. 하지만 일반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장기적인 웰빙의 관점에서 훨씬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질 것임
- 통계작성기관들이 보다 신뢰성있고 시의성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 지식, 정책간의 연계는 여러가지 이유로 잘 안되고 있음
- 경제, 정치이론에 따르면 보다 낫은 정보는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고 지식으로 전환되어야하는데, 우리 경제, 사회와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지식임
- 올바른 정치과정에는 국민들이 과거 정책의 결과 혹은 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함이 필수요소임
- 경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정치 과정에서는 서로의 견해를 나타내기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사용함. 하지만 서로가 경제, 사회적 정보에 대해 공유한다면, 과거의 정권(정부)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 서로가 다투는 것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사실(숫자)에 입각한 논쟁이 가능할 것임

정보와 경제이론간의 관계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처음 분석되었음.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항상 완전한 정보(재화의 품질, 가격 등)을 가진다고 전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 이론은 현실의 불완전한 정보, 비대칭적 정보 등에 의해 비판받고 있음

◇ 참고 : 뉴욕타임즈 기사 (2008. 8.31)

Hey, Big number, Make room for the rest of us

지난 75년동안 GDP는 미국경제의 활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또한 14조달러에 이르는 경제규모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인식시켰다.

하지만, GDP는 본래 의도했던 역할 이상의 것을 요구받고 있다. 즉 GDP가 경제적인 면을 측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런 완전하지 못한 숫자가 한국가의 전체적인 Well-being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40년 전에 로버트 케네디가 했던 말처럼 GDP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 단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외하고서 말이다.

GDP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미국인들이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바로 지난주에 정부가 지난 분기 성장률이 3.3%에 이른다고 발표했을 때 (금융)시장은 상당히 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만약 GDP라고 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실물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

최근 정부분석가들은 통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생산량과 같은 산출물을 측정하는 것 대신에, 확장된 GDP 혹은 교육성취도, 성공적인 육아, 기대수명 등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많은 연구그룹들이 GDP 지표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한참 잘나갈 때는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때는) 이러한 연구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특히 요즘과 같이 Well-being과 경제지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일련의 위기를 감안할 때 단순히 한분기의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

“아마도 우리는 GDP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고 Well-being 측정을 위한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작단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Amartya Sen은 말하고 있다. Sen과 Stiglitz는 보다 나은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이 만든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이기도 하다. 비록 사르코지가 (프랑스의) 낮은 GDP 수준에 대응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긴 하지만, 그의 노력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어떤 결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GDP는 미국 대공황기에 경제가 언제 어느정도 불황기에 빠져드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성공적이었고 많은 국가들이 GDP 시스템을 적용하여 그들 국가의 경제상황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GDP는 한 국가가 생산해낸 경제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준다. 미국 경제분석국에서는 일년에 4번 GDP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발표하고 있다. 세계2차대전을 즈음한 시기에 GDP의 상승은 곧 개인소득의 상승을 의미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컨대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합이 모두 GDP에 반영되는 것은 예전과 같지만, 실제 소득은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것보다는 주식배당금의 형태로 혹은 기업잉여, 수백만달러를 받는 기업 CEO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GDP는 분배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²⁾

특히 최근 15년기간 동안에 그러한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GDP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임금상승은 정체되었고, 연금은 축소되었으며,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었다. 그밖에도 GDP는 많은 다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죄수가 늘어나서 교도소를 짓는다고 가정해볼 때, 교도소 건설은 분명 GDP 증가에 기여한다. 하지만 GDP를 산출할 때 그러한 일(교도소의 건설)이 일어나도록 만든 범죄의 증가는 GDP에 마이너스 항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벌목의 경우도 GDP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2) 분배국민소득이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GDP총량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미

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관리도 그것을 위해 지출한 돈이 GDP에 반영되는 것이지 실제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가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주요한 요인이지만 역시 GDP의 마이너스항목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GDP는 상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육아를 부가가치 창출의 한 활동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가는 장래의 기술수준, 생산성의 정도에 대한 일종의 투자와도 같은 것이다. 미국 상무성 경제분석국은 육아의 달러가치를 시간당 10불 수준으로 잡고 GDP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계정에는 새로운 주요 산업, 즉 육아산업이 추가되고 또 금액으로 측정될 것이다.

육아부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경제학자들이나 정부관계자들에게는 무형의 경제활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미국인간개발프로젝트의 공동책임자인 크리스틴 루이스는 말한다. 민간사이드에서 개발된 웰빙지수들은 GDP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2003년부터 시작된 "Time Use" 조사³⁾는 GDP 개선을 위한 주요한 기초자료로서 인식되고 있다. 노동통계국은 매년 14,000명을 대상으로 특정날짜에 매 시간단위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육아에 소요된 시간은 달러가치로 표현되어 GDP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임 경제분석국장인 캐서린 아브라함은 "만약 당신이 단순히 경기사이클과정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만 궁금하다면 GDP로서 충분하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젠가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방식으로 좀더 조율된 GDP가 만들어질 것이다.

3) 우리나라의 생활시간조사

2. 어떻게 사회발전을 측정할 것인가?

□ 개요

-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지표선정은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합의(Roundtable의 구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중요
 - "Indicators are good masters, but not good servants."
- 사회발전이란 multi-dimensional하고 이는 곧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사회발전에 대한 측정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도 매우 중요함 → "Telling a Story"
 - "단지 극소수의 음악가들만이 음악을 듣지않고 음표만을 보고도 그 음악이 대단한 음악인지 알 수 있다. 통계작성자들도 흔히 음악을 연주하지 않고 단지 음표를 보여주기만 한다." (Hans Rosling, 스웨덴)

□ 주요 내용

- 발전의 차원(Dimensions of Progress)은 다차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
 - 하나의 숫자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GDP를 수정한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 $GDP - \text{"real crime cost"} + \text{"uncounted benefits"}$)를 사용할 수도 있음
 - 지표체계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각국들은 각자의 환경에 맞는 지표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지표는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지표들은 방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야함. 즉 어떤 지표가 상승했을때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면 이 지표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없음
- 지표성격에 따라 주관적(특정현상에 대해 사람들의 느낌의 정도, ex. 주관적인 건강상태, 사업전망 등), 객관적지표로 구분

주관적	hIGH	Well-being	Dissonance
	LOW	Adaptation	Deprivation
		HIGH	LOW
객관적			

○ Case Study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evidence가 공공의 의사결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지못하는 것에 커다란 우려를 하고 있고 최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당신이 만약 대통령보좌관이라면 대통령에게 어떤 권고내지 조언을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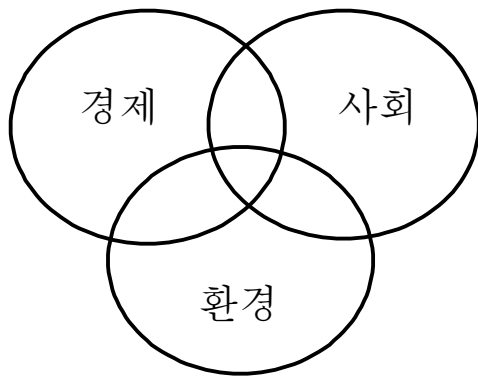
-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검토 필요

- ① 국민들이 통계(혹은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정도
- ② 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 ③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관련성
- ④ 내용을 잘 표현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 그룹별로 관련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가 속한 A그룹은 위와같은 과제를 할당받아 4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료를 확정하고 마지막날 자료를 발표하였음

3. 호주 사례연구

- 국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졌는가에 대한 정보를 통해 국가발전을 측정하는 것은 국가통계작성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임
 - 거의 100년동안 호주통계청(ABS)은 호주의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통계생산을 통해 국가발전을 측정해왔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각이 아닌 각기 부문별로만 측정되어왔음
 - ABS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4년 4월 호주발전의 측정(Masures of Australia's Progress)에 대한 두권의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매년 업데이트 할 계획임
- 주요지표(Key Indicators)들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측정을 통해 삶이 더 향상되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기보다는 개개인들이 개별적인 가치와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국가발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책자에는 ABS의 접근방법이 언급되어있고 왜 대체지표가 아닌 그 지표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또한 발전의 차원(Dimensions)과 발전의 대표지표를 선택한 기준, 발전측정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Framework)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 환경발전이란 환경에 대한 위협의 감소, 생태계에 있어서의 건강의 증진을 의미
 - 경제발전이란 미래의 소비수준을 저해하지 않는(나아가서는 증진시키는) 범위내에서 국가의 소득증대를 의미
 - 사회발전이란 국민 웰빙의 증진, 위협의 감소, 사회적 융합의 증진, 민주주의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의미



<부문간 상호 관련성>

- 세부문은 상호 독립적일 수 없음
- 어느 부문에 우선순위를 높이는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줌

- 사회발전의 범주내에서 건강이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얼마나 오래살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것은 발전측정을 위한 요약지표의 성격을 가짐
- 출생시 기대수명은 국민건강을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지만 삶의 질 그 자체 보다는 삶의 길이를 나타내는 지표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구의 건강을 나타내는 요약지표임
- 발전을 측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는 것임. 그것은 어떠한 수준 혹은 활동패턴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는 좀더 복잡한 문제임
 - ABS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전문가들사이에서 정의에 대한 여러가지 이견들이 존재
 -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할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누구나 이를 감축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할 것임.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 온실가스배출 감축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듦
 - 발전에 대해 우리가 보다 비중을 둔다면 웰빙이나 삶의 질보다는 경제, 환경의 개선이 보다 중요성의 띄게 됨. 웰빙에 대한 논의가 생산성이나 경쟁력과 같은 경제지표를 포괄하지는 않을 것임

< 호주의 지표체계 >

Dimension	Headline progress indicator
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
Education and Training	People aged 25–64 with a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on
Work	Unemployment
National Income	Real net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Financial Hardship	Average real equalised weekly disposable income of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deciles of the income distribution
Housing	Real national net worth per capita
Productivity	Multifactor productivity
The Natural Landscape	Threatened birds and animals; annual area of land cleared; salinity, assets at risk in area affected by salinity; proportion of water management areas where use exceeded 70% of sustainable yield
The Human Environment	Fine paticle concentrations, day health standards exceed
Oceans and Estuaries	No headline indicator but a range of supplementary indicators are discusse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cerns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Family, Community and Social Cohesion	No headline indicator but a range of supplementary indicators are discussed
Crime	Victims of personal and household crimes
Governance, Democracy	No headline indicator but a range of supplementary indicators are discussed

IV

출장성과 활용방안

□ 가칭 ‘국민 삶의 질 지수’ 작성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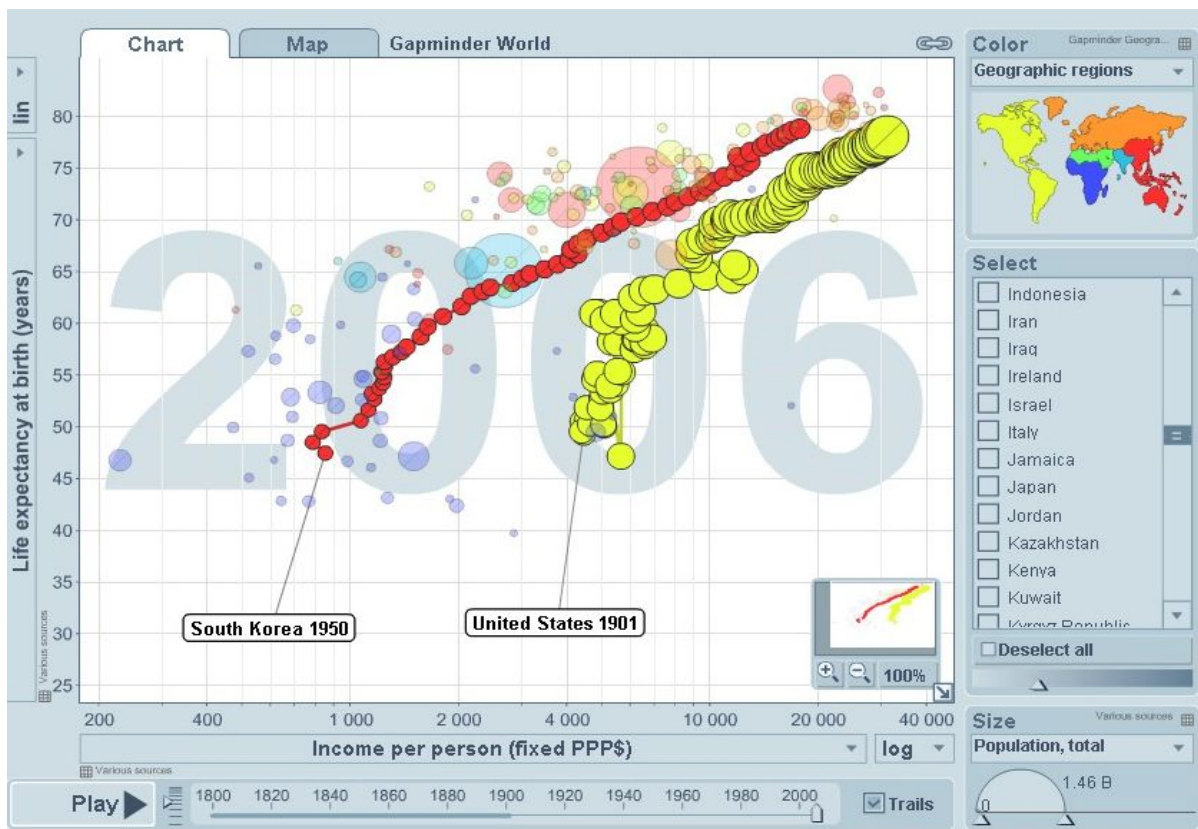
- 지난 40여 년 간 국민소득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수준 내지는 삶의 만족도는 낮은 상황
 -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지수는 OECD 평균 0.69를 크게 하회하는 0.45로 전체 조사대상국 26개국 중 23위를 기록 (2006 OECD 사회지표)
 - 국내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행복도는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하락['95년 88% → '05년 74%]한 것으로 조사
 - * 한국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조사(SBS-갤럽 서베이, 2006)
 - Easterlin Paradox : 웰빙은 소득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
 - * 미국의 경우 지난 십년간 근로시간이 유럽국가들이 감소한 것에 비해 증가하였음. 왜 그럴까? → 개인·사회관계의 악화(Decrease of Relational Goods)는 근로시간의 증가로 이어지기 쉽고, 또한 근로시간의 증가(곧 소득의 증가)는 개인·사회관계의 유지를 위한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Vicious circle)이 지속되면서 행복수준의 하락을 초래
 - * 우리의 경우에도 인간관계의 악화(소외감, 우울증 등)는 물질적인 면으로 보상 받으려고 하고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는 다시 시간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초래
- 호주의 사례 등은 지표선정 및 개발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흐름의 파악을 통해 삶의 질(혹은 행복)지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강한 확신을 갖게 해줌
 - 특히 각국에서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Round-Table'의 구성에 대한 것인데, 향후 우리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으로 민간, 정부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

□ 통계자료의 제공방식의 다양성 제고

- ‘통계, 지식 그리고 정책’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세계각국은 단순히 통계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Telling a Story”를 위해 노력중
 - 특히, 영국 Durham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smart center 프로그램이나, Gapminder 등은 우리의 KOSIS, e-나라지표 등 통계자료 제공시스템에서 도입을 검토할만한 내용으로 판단됨

* www.durham.ac.uk/smart.centre

* www.gapminder.org



- IC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기 쉽게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통계수치의 해석(분석)에 있어서 이것이 통계청의 역할인가에 대해서는 이견들도 있었음
 - 통계청의 본연의 역할은 정확한 데이터를 적기에 생산하는데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 내년 3차 OECD 세계포럼시 주제발표

- 현재 추진중인 ‘국민 삶의 질 지수’의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내년에 발표함으로써 각 국으로부터 다양한 Feedback을 받고 이를 통해 보다 개선된 지수작성 가능
- 또한 이번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개인적인 소감

출장시기가 추석연휴와 겹쳐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회의중에 그리고 다녀와서의 느낌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외국참가자들과의 그룹미팅, 토론, 발표자료 작성, 발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서로간의 친밀도가 증가하고 나중에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항상 외국에 나가면 느끼는 것이지만 언어의 장벽이란 역시 만만한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업무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업무후에 개인적인 만남(맥주잔을 기울이면서)에서 오가는 정치이야기 등등은 그냥 옆에서 열심히 listening 연습만 하게 만들더군요.

사실 단기연수과정이라 제가 어떤 기여를 한다기 보다는 주어진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녀와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전달하기에는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GDP 등 기존의 경제지표에 대한 한계에 대한 각국의 공통된 인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하는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 통계청 아니 우리나라의 통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첨부]

연수자료 목록

-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 : a global movement for a global challenge, Enrico Giovannini(OECD)
-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 understanding societal change, John Hall(OECD Global Project Team)
- How can we improve the credibility of evidence?, Daniel Byk(룩셈부르크)
- Why measure the progress of society?, John Hall
- Turning statistics into knowledge : new ICT tools, Jim Ridgway(Durham univ. United Kingdom)
- Communication statistics : with whom and how, Daniel Byk(룩셈부르크)
- The main approaches to measuring progress and measuring well-being, John Hall(OECD Global Project Team)
- The state of the art in indicator research, Filomena Maggino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of life studies)
- Does money buy happiness : the easterlin paradox, Stefano Bartolini (University of Siena)
- Measuring the progress in practice : the Australian experience, John Hall